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4. 7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08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자재비 지수, CBSI조사 이후('01.5 이후) 최악 수준 기록

자재비 및 수급 불안 영향, 건설업 체감경기 다시 급락

- 2008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큰 폭(16.8p)으로 하락한 58.2를 기록하여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급속히 악화됨.
 - 지난 2월에 전월대비 지수가 7.4p 상승한지 한달만에 다시 지수가 큰 폭(16.8p)으로 하락함.
 - 이로써 지수가 58.2를 기록해 작년 1월 1.11 대책 발표 영향으로 지수가 급락(전월비 19.8p 하락)해 58.9를 기록한 수준으로 다시 하락함.
 - 통상 봄철에는 체감경기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 건설 자재비 급등, 수급 불안,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악화된 때문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견, 중소 업체의 체감경기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특히 대형업체의 지수 하락 폭이 컸음.
 - 대형, 중견, 중소 업체의 지수가 각각 전월대비 31.9p, 4.3p, 13.2p씩 하락한 55.6, 75.0, 42.2를 기록하여, 업체 규모에 관계 없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모두 악화됨.
 - 특히 대형업체의 지수가 전월대비 31.9p나 하락한 55.6을 기록하여 체감경기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 그동안 중견, 중소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대형 업체의 체감경기마저 자재비 급등,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의미함(대형업체의 자재수급/비용 지수가 중견/중소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악화, 조사결과 6page 참조).
 -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수가 42.2를 기록해 다시 50선이 무너졌는데, 이는 2006년 8월 31.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여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함.

- 공사물량 지수도 전월대비 6.7p 하락한 66.2를 기록했는데, 공종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주택 물량 지수의 침체가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함.
- 공사물량 지수도 전월대비 6.7p 하락한 66.2를 기록하여 작년 1월 53.9, 작년 2월 64.8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공종별 물량지수를 살펴보면, 토목 71.6, 주택 60.1, 비주택 64.1을 기록해 여전히 주택물량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침체수준이 가장 큼.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 66.7, 중견업체 82.1, 중소기업체 47.6을 기록해 체감경기 지수와 마찬가지로 대형업체의 감소 폭(-20.8p)이 가장 큰 가운데, 지수 자체는 중소기업체가 가장 낮아 중소기업체의 물량 침체가 여전히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수급 및 인건비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가운데, 자재수급 및 자재비 지수가 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함.
- 인력수급 지수가 전월대비 10.6p 하락한 81.2를 기록해 상황이 나빠졌으나, 지수 자체가 자금 및 자재부문 지수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상황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도 전월대비 3.6p 상승한 77.0을 기록해 지수 자체가 자금 및 자재부문 보다 다소 양호함.
- 반면, 자재비 지수는 전월대비 17.4p 하락한 16.0을 기록하여 CBSI조사가 시작된 200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자재수급 지수도 전월대비 20.5p나 하락한 44.2를 기록해 자재수급 상황도 급속히 악화됨.
- 한편, 공사대금수급은 전월대비 6.1p 상승한 76.8을 기록,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한 70.3을 기록해 악화된 공사비 수급 상황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남.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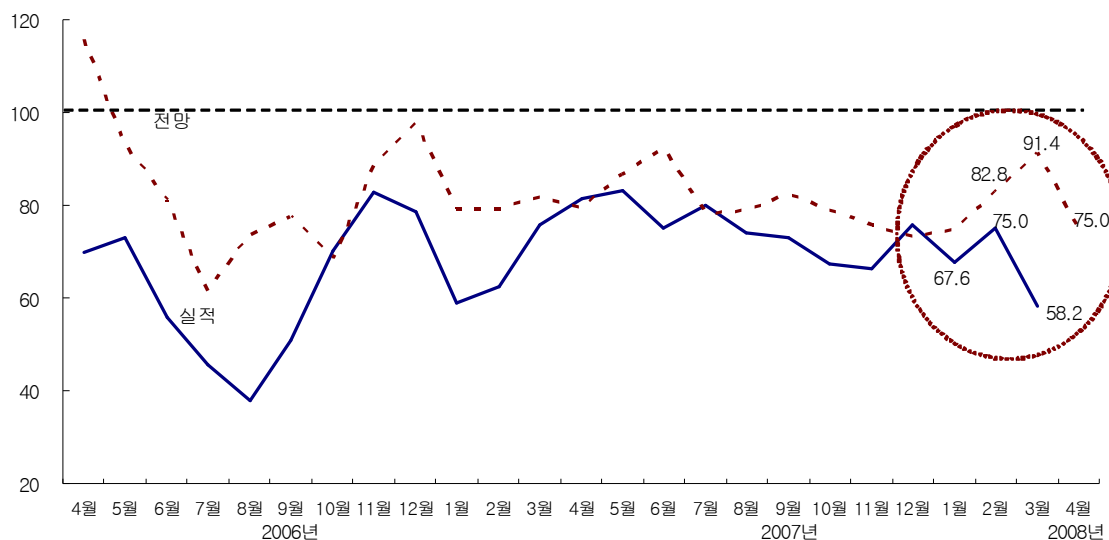
※ 붙임 : 2008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 결과 자료.

2008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자재비 및 수급 불안 영향,
건설업 체감경기 다시 급락(전월대비 16.8p 하락)

- 2008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큰 폭(16.8p)으로 하락한 58.2를 기록하여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급속히 악화됨.
- 지난 2월에 전월대비 지수가 7.4p 상승한지 한달만에 다시 지수가 큰 폭(16.8p)으로 하락함.
- 이로써 지수가 58.2를 기록해 작년 1월 1.11 대책 발표 영향으로 지수가 급락(전월비 19.8p 하락)해 58.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통상 봄철에는 체감경기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 건설 자재비 급등, 수급 불안,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악화된 때문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중견, 중소 업체의 체감 경기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특히 대형업체의 지수 하락폭이 컸음.
 - 대형업체의 지수가 전월대비 31.9p나 하락한 55.6을 기록하여 체감경기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 그동안 중견, 중소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대형 업체의 체감경기마저 자재비 급등,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의미함(대형업체의 자재수급/비용 지수가 중견/중소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악화, 6page 참조).
 - 중견업체, 중소업체 또한 각각 전월대비 4.3p, 13.2p씩 하락하여 75.0과 42.2를 기록함
 - 중소업체의 경우 지수가 42.2를 기록해 다시 50선이 무너졌는데, 이는 2006년 8월 31.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여서 중소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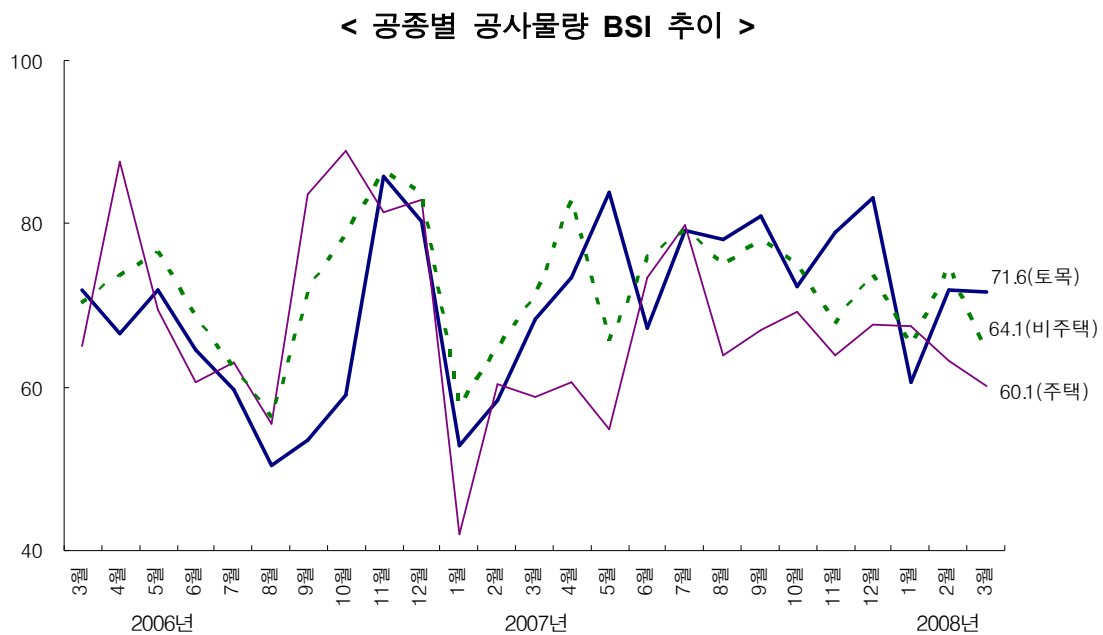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년 1월	2월	3월		4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3.2	75.1	80.1	74.0	73.1	67.2	66.4	75.7	67.6	75.0	58.2	91.4	75.0
규모 별	대형	92.3	83.3	100.0	91.7	100.0	77.8	70.0	81.8	72.7	87.5	55.6	100.0	77.8
	중견	90.6	76.7	81.3	76.9	64.0	73.3	73.1	76.9	75.9	79.3	75.0	96.6	89.3
	중소	64.0	63.6	55.4	50.0	52.0	47.9	54.7	67.2	52.1	55.4	42.2	75.3	55.6
지역 별	서울	94.8	87.9	92.9	85.1	88.5	76.6	75.8	82.6	76.3	86.2	63.7	99.7	82.3
	지방	66.7	57.9	60.1	56.3	48.5	50.5	51.9	61.6	53.1	55.6	46.9	76.7	61.6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63.7, 지방업체가 46.9를 기록함.
 - 서울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22.7p 하락 하였으며, 지방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8.9p 하락하여 체감 경기 침체수준이 전월대비 악화됨.
 - 지방업체의 체감 경기 침체수준은 2007년 2월 45.9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2008년 4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75.0를 기록하여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다소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업체는 77.8, 중견업체는 89.3, 중소기업체는 55.6으로 전망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업체는 82.3, 지방업체는 61.6으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6.7p 하락한 66.2 기록,
주택 물량지수의 침체 가장 심각

- 2007년 3월 공사물량지수도 전월대비 6.7p 하락한 66.2를 기록함.
- 공사물량 지수가 작년 1월 53.9, 작년 2월 64.8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공중별로 보면 토목 71.6, 주택 60.1, 비주택 64.1을 기록해 주택물량에 대해서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침체수준이 가장 큰 가운데 비주택 물량에 대한 체감도가 급격히 악화됨(전월대비 10.7p 감소).
 - 토목물량은 전월(72.0)과 비슷한 수준인 71.6을 기록함.
 - 주택물량지수는 전월보다 3.2p 감소한 60.1로 2007년 1월 42.7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0.7p 감소한 64.1을 기록, 최근 1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지수가 떨어짐.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 66.7, 중견업체 82.1, 중소기업체 47.6을 기록해 체감경기 지수와 마찬가지로 대형업체의 감소 폭(-20.8p)이 가장 큰 가운데,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가 가장 낮아 여전히 중소기업체의 물량 침체가 심각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6.2	66.7	82.1	47.6	70.2	57.7
	전망	79.8	77.8	96.4	63.3	84.2	71.1
토목	실적	71.6	88.9	69.2	54.0	80.1	56.2
	전망	85.2	88.9	92.3	72.9	89.2	77.4
주택	실적	60.1	77.8	61.5	37.7	70.5	42.0
	전망	71.5	77.8	84.6	49.1	77.3	60.8
비주택	실적	64.1	77.8	73.1	37.9	75.8	42.3
	전망	71.9	77.8	85.2	50.0	78.6	59.9

주 : 실적은 2008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8년 4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보다 14.0p 하락한 70.2를 기록한 가운데,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4.8p 상승한 57.7을 기록하여 침체수준이 이전보다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08년 4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79.8을 기록하여 3월보다 전월대비 공사물량 침체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자재비 지수, CBSI조사 이후('01.5 이후) 최악 수준 기록

- 인력수급지수 수준은 전월대비 10.6p 하락한 81.2를 기록, 인건비지수는 전월대비 3.6p 상승한 77.0을 기록함.
 - 인력수급 지수가 전월대비 10.6p 하락한 81.2를 기록해 상황이 나빠졌으나, 지수 자체가 자금 및 자재부문 지수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상황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도 전월대비 3.6p 상승한 77.0을 기록해 침체 수준이 소폭 개선되었으며, 지수 자체가 자금 및 자재부문 보다 다소 양호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76.8	88.9	75.0	64.6	81.4	68.8
		전망	84.3	100.0	82.1	68.3	89.7	75.0
	자금조달	실적	70.3	77.8	75.0	56.3	77.6	56.9
		전망	74.0	77.8	82.1	60.3	77.6	66.7
인력	수급	실적	81.2	66.7	100.0	76.9	81.5	79.5
		전망	87.6	77.8	103.6	81.0	89.9	83.4
	인건비	실적	77.0	100.0	71.4	56.3	89.8	56.4
		전망	80.0	100.0	85.7	50.0	93.5	57.7
자재	수급	실적	42.2	44.4	50.0	30.8	49.1	30.7
		전망	46.2	44.4	60.7	31.7	52.8	34.7
	비용	실적	16.0	22.2	14.3	10.8	19.4	10.6
		전망	20.6	22.2	21.4	17.7	21.3	19.5

주 : 실적은 2008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8년 4월 예측지수임.

- 반면, 자재비 지수는 전월대비 17.4p 하락한 16.0을 기록하여 CBSI조사가 시작된 200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자재수급 지수도 전월대비 20.5p나 하락한 44.2를 기록해 자재수급 상황도 급속히 악화됨.
- 업체 규모별로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의 전월대비 변동 폭을 살펴보면, 대형업체의 감소 폭이 가장 커 대형업체가 자재비 및 수급 지수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자재비 지수의 경우 대형, 중견, 중소 업체가 각각 전월대비 27.8p, 5.7p, 18.6p 하락한 22.2, 14.3, 10.8을 기록함.
 - 자재수급 지수의 경우 대형, 중견, 중소 업체가 각각 전월대비 43.1p, 0.0p, 17.2p 하락한 44.4, 50.0, 30.8을 기록함.
 - 이는 자재비 및 수급상황 악화로 대형 업체마저 최근 들어 자재비와 수급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을 나타냄.
- 한편, 공사대금수급은 전월대비 6.1p 상승한 76.8을 기록,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한 70.3을 기록해 악화된 공사비 수급 상황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남.